

금요일예배 설교노트 - 시가서 시리즈 (5)

설교자: 김영목 목사

“전도서 - 인간의 본분: 하나님 경외, 계명 준수 (전도서 12장 13-14절)

● **저자:**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전통적으로 다윗의 왕인 솔로몬 왕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윗 혈통의 다른 후손으로 보기도 하고, 후대의 실존 인물로서 솔로몬 왕의 페르소나를 빌려 이스라엘을 가르친 자로 보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견해가 나타나는 이유는 전도서에서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솔로몬’이란 이름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자 마틴루터는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틴루터는 솔로몬 시대 이후 한 사람이 ‘헛된 것을 좇다 죽은 솔로몬 왕을 생각하며 전도자를 솔로몬으로 이해하도록 쓰여진 책’이라고 보았다.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후대의 사람들이 이 책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지혜자의 대표적인 솔로몬을 내세웠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전도서는 독자들에게 ‘전도자’가 솔로몬으로 이해되도록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전도서에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저자가 등장하고 있다. 서론과 결론 부분을 썼고, 전도자를 3인칭으로 언급하는 익명의 저자, 그리고 본문 부분에 나타나는 1인칭 시점으로서 전도자이다. 3인칭으로 글을 쓰는 익명의 저자를 ‘프레임 서술자’ 혹은 ‘액자 밖의 저자’라고 부른다.

● **화자에 따른 구조**

- 1, 서론 (1:1-11) “삶이란 무엇인가?” (3인칭 관점으로 전도자를 언급함)
- 2, 본문 (1:12-12:7) “삶은 허무한 것이다.” (1인칭 관점으로 전도자를 지칭함)
- 3, 결론 (12:8-14) “허무한 삶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3인칭 관점으로 전도자를 언급함)

● **기록목적:** 전도서의 저자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세우려는 모든 방법을 전도자를 통해 무너뜨리려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즉, 우리가 결국 의미 없이 사라질 것들에 애를 쓰며, 감정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전도자를 통해 현실에 대해 엄중한 교훈을 주는 것이다. 특히 서론과 결론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 ‘시간’(전 1:3-11)과 ‘죽음’(11:7~12:7)에 대한 두 개의 시를 통해서 책의 전체적인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전도서의 핵심 주제: ‘헛됨’**

1. 헛됨으로 해석된 히브리어 ‘헤벨’ (הבל)

- 1) 사전적 정의: 수증기, 연기, 안개, 숨, 바람 (구약성경에서 총 69번 사용되었고, 그 중 38번이 전도서에서 사용)
- 2) 전도서에 사용된 ‘헤벨’을 단순히 ‘헛되다’란 의미로 해석하면 본래의 핵심 개념을 놓치기 쉽다. 전도서에서 헤벨은 인생이 얼마나 ① 일시적이며 찰나적인지 ② 인생이 얼마나 수수께끼 같고, 역설적인지 나타내고 있다.
- 3) 인생은 잡힐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잡으려 보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연기와 같다. 바람을 잡으려 함과 같다.

2. 전도자가 자신의 경험으로 논증하는 허무함

- 1) 지혜의 허무함 (1:12-18)
- 2) 쾌락의 허무함 (2:1-3)
- 3) 업적의 허무함 (2:4-11)
- 4) 슬기, 어리석음의 허무함 (2:12-17)
- 5) 힘든 노동의 허무함 (2:18-23)

3. 본론을 기록한 전도자의 결론은?

- 1) 어떻게 살아도 ‘헤벨’일 뿐이다...
- 2) 지혜 유익을 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 삶을 좋게 만들어 준다는 전제를 인정함
- 3) 그러나 여전히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은 예외 사항이 있기에 그조차도 ‘헤벨’일 뿐이다.

4. 서론과 결론을 기록한 익명의 저자의 결론은?

- 1)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따라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 전도서 내용**
**1. 서론 (1:1-11) : 삶이란 무엇인가?**
**1) '전도서'라는 책 제목의 유래**

1절에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에서 따왔다.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할렛’(קֹהֲלֵת)이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설교자’,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 ‘사람들을 모은 자’란 뜻을 가지고 있다. (공동번역성경에는 ‘전도자’가 ‘설교자’로 번역됨) 한글성경에는 ‘코할렛’을 ‘전도자’로 번역했던 교회 전통을 따라 ‘전도서’로 제목이 남게 되었다.

**2) '헛되다'(헤벨)로 시작해서 '헤벨'로 끝나는 책**

- ① (전 1:2)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 ② (전 12:8)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 ③ 인생의 '허무'와 '헛됨'은 전도서 본문 안에서의 결론일 뿐, 전도서 전체의 핵심 결론은 아니다. (결론은, 전 12:8-14)

**2. 본문 (1:12~12:7) : 삶은 허무한 것이다.**
**1) 경험으로 하는 논증 (1:12~2:26)**

- ① 지혜의 허무함 (1:12-18)
- ② 쾌락의 허무함 (2:1-3)
- ③ 업적의 허무함 (2:4-11)
- ④ 슬기, 어리석음의 허무함 (2:12-17)
- ⑤ 힘든 노동의 허무함 (2:18-23)
- ⑥ 결론: 삶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만족하라

**2) 관찰로 하는 논증 (3:1~6:12)**

- ①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획 (3:1-22)
- ② 불평등한 인생 (4:1-16)
- ③ 불충분한 인간 종교 (5:1-7)
- ④ 불충분한 부유함 (5:8-20)
- ⑤ 피할 수 없는 삶의 허무함 (6:1-12)

**3) 허무한 삶에 대한 전도자의 조언 (7:1~12:8)**

- ① 지혜와 어리석음 대조 (7:1-14)
- ② 중용의 지혜 (7:15-18)
- ③ 지혜의 힘 (7:19-29)
- ④ 권위에 순종 (8:1-9)
- 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다 알 수 없음 (8:10-17)
- ⑥ 모든 사람에게 임할 심판 (9:1-6)
- ⑦ 인생을 즐겨라 (9:7-12)
- ⑧ 지혜의 가치 (9:13-18)

**4) 불확실한 인생에 대한 조언**

- ① 지혜의 특성 (10:1-15)
- ② 왕과 관련된 지혜 (10:16-20)
- ③ 사업과 관련된 지혜 (11:1-6)
- ④ 젊은이와 관련된 지혜 (11:7~12:7)

**3. 결론 (12:8-14) : 허무한 삶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1) 익명의 저자가 전도자의 가르침처럼 인생은 헛된 것을 인정함 (12:8-10)
- 2) 전도자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중요함. 목자가 쓰는 꼴이 뾰족한 지팡이와 같다. (12:11)
- 3) 전도자의 말을 지나치게 받아들여지면 답을 알 수 없는 실존적 고민에 빠지게 됨을 경고(12:12)
- 4) 해 아래는 허무하다. 그러나 해 위에 계신 분이 모든 행위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은 사람의 본분이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유일한 길이다. (12:13-14)